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을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을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54호 현대불교

29

2011년 9월 21일(음 8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부처는 각자 마음에 있는 거지 어떤 형상에 있는 게 아니다

굳이 마음도리를 알아야 하나요?

문) 살다 보면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지만 마음이 더 착하고 평화롭게 사시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굳이 이 마음도리를 알아야 할까요?

답) 이러한 마음공부는 이 세상에서 돈을 산더미같이 갖다 주고도 그것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배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연을 만난 것도 역시 천세의 인연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만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옛날에 그런 인연을 뭐라고 비유했느냐 하면 아주 깊은 바다 속에서 거북이가 천 년을 공부하다가 한 번 물위로 툭 뜰 때 그 구멍 뚫린 뗏목 하나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깁니다. 금방 거북이가 뜨는데 뗏목이 별안간에 어디서 나타나까? 허허바다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공부 인연이 이렇게 뗏목 만난 거나 똑같은 얘깁니다.

이런 인연을 그냥 저버리고 몸을 벗는다면, 이도리를 모르고 그 차원에서 이 세상을 떠나서 간다면 그 의식 자체만 있어 가지고 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까치둥우리도 이 부부기간에, 즉 말하자면 음과 양이 한데 합쳐서 벌레든지 새든지 구렁이든지 뭐 어떤 거든지 돌이 잠자리 할 때 거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냥 태어나면, 뱀의 잠자리에 들어가면 뱀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소가 그럴 때 들어가면 소모습을 타고 나는데, 한 번 소가 되거나 뱀이 되거나 까치가 되거나 새가 된다거나 저 물고기가 된다거나 이러면 그것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 습이 거기 자꾸 붙어서, 자식이다 무슨 어미다, 이렇게 해서 착이 붙어 가지고 영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 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 되기가 어려운 까닭에 사람이 됐으면 좀더 마음의 세계로 승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면서 쫓기고 쫓으면서 이렇게 살아오던 그 습에 젖어 가지고 벗어날 줄 모르는 거죠. 그레 인간까지 벗어났으면 위로 상세계의 그 내 마음의 세계로, 자유스러운 세계로 이렇게 좀더 승진했으면 좋지 않았습니까? 이진 중세계입니다. 하세계로 떨어지느냐, 마음의 세계 상세계로 올라가느냐 이러한 교차로가 중세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미생물에서까지, 저 식물에서까지 여기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심성물리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과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천문학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게 전부 종합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종합되어 있는 그 여여함, 갖춰 가지고 있는 그 여여함, 그 마음, 그 마음이 아니라면 그 모두를 어떻게 연구해서 지금 이 세계가 발전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발전이 됐는데도 모든 큰 무기를, 핵폭탄이나 또는 수소폭탄을 만들어도 사람을 죽이려고 해 놔지 살리는 데에 쓰려고 해 놓은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모든 게 우리가 살기 좋아진 것은 컴퓨터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도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게끔 만들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마는 이런 공부를 하면 컴퓨터도 나를 감지 못합니다. 탐지기도 나를 감지 못해요. 자유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탐지기가 바로 난데 무슨 뭐를 전망합니까? 컴퓨터가 난데 무슨 업보가 거기 입력이 되어 있었습니까? 또는 천체망원경이 난데 망원경이 따로 있었습니까? 그 망원경은 한계가 있는 거지만 내 심안의 망원경은 한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보배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 된 거는 자식으로 서의 어떤 한계가 있지만, 물론 자식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죠. 자식으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정치만 해 놓는다면 차가 그냥 공중으로 떠다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 범위 내를 떠나지 않고 달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인간의 이 자력이라는 거는 한계가 없

습니다. 우주 천하를 그냥 탐험할 수 있는 이러한 자력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거를 등한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무 끝의 이파리 같은 이 몸뚱이를 가지고 얼마나 붙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데만 급급해서 하루 버는 것만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한 번 생각에 자력의 능력으로 그냥 끌어오는 거하고 내 몸뚱이가 쫓아다니면서 한푼 한푼 버는 거하고는 차 다릅니다. 그러기에 황소걸음은 한 발을 떼도 황소걸음이지만, 줄게 걸음은 백 번을 떼도 황소걸음 한 발 걷는 것만은 못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뜻을 이 도리를 알아야 아실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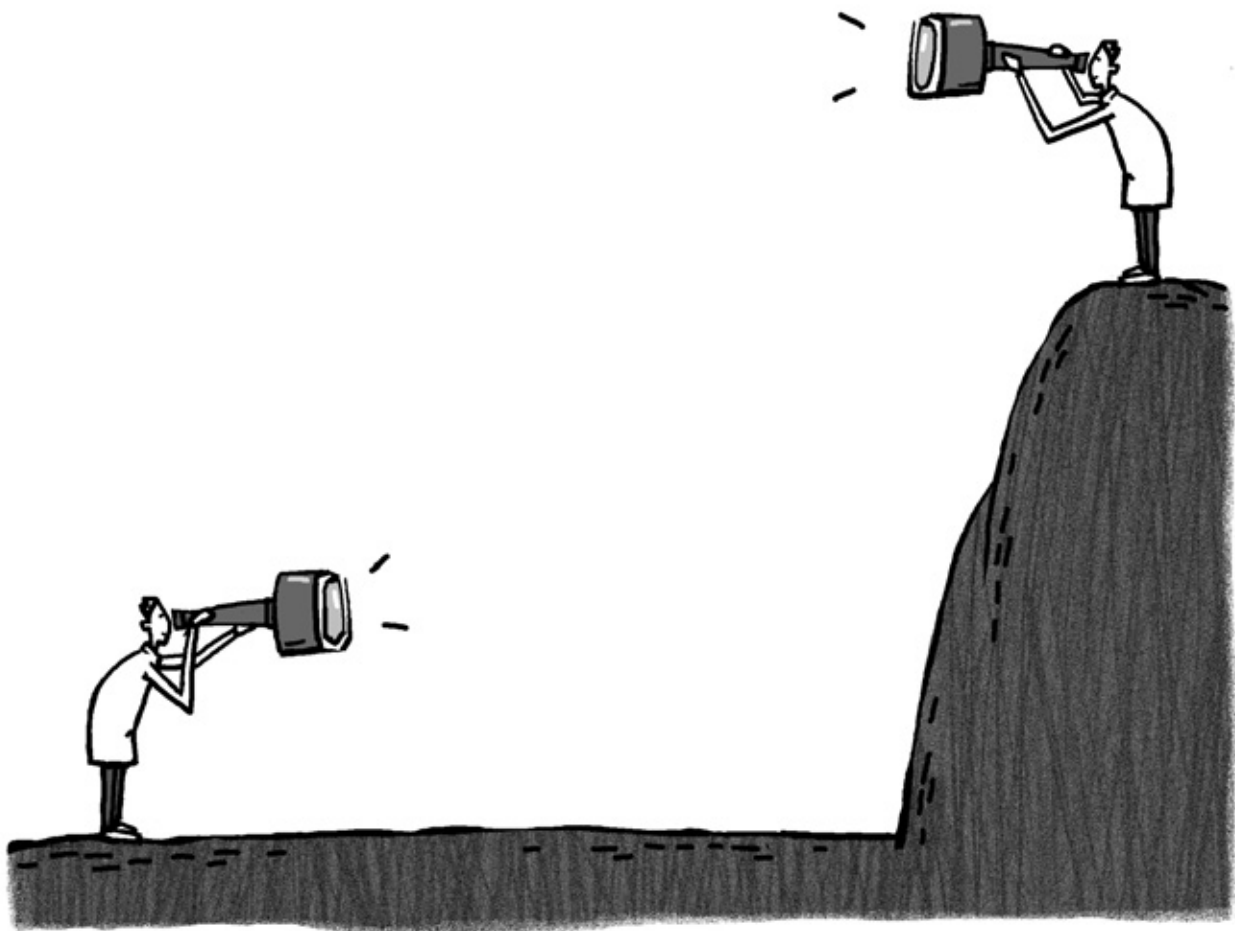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점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정년퇴임하고 지금은 다른 일거리를 찾지 못해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마음이 위축돼서 그런지 사소한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가면서 화도 자주 내게 됩니다.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마음은 없는 거라고 하죠. 마음이 없는 게 마음이죠? 우리가 그 마음이 무엇을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먹었다고 할 수도 없는 까닭은 여러 분 몸속에, 육체 안에 생명들이 많으시죠? 생명과 모습과 의식이, 그 많은 의식들이 어디의 다스림을 받고 사느냐. 내 마음이 안으로 모든 것을 믿고 거기에 입력될 때 거기서 다스림을 받게 되죠.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영혼은, 각자 영혼은 악으로 가느냐 선으로 가느냐의 교차로를 증명해 주고 자길 따라 주는 그런 것이 영혼이 지마는 에너지를 배출시키고 움직여지지 않는 자기의 주인공, 그대로 불기둥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몸속에 있는 의식들이 주인공에다 놓으면 모든 것을 한마음으로 밀어 가는 응신이 됩니다.

사람은 그래서 위대한 것이고 자기 모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고등 동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간이죠. 그 인간으로서 우리가 좀더 이렇게 연결돼서 산다는 사실을 아느니만큼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더할 수 없는 보배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보디가드가 될 수 있고 이끌어 주는 주인공이 될 수 있고, 해결사가 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거수일투족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신 누가 죽어 주는 사람도 없을 테고 대신 아파 주는 사람도 없을 테고, 또 밥 먹어 주고 잠을 자 주고 똥을 뉘 줄 수도 없겠죠. 그리고 깨달아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 홀로 와서 이 길을 걷다나 길로 간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그것이 아주 실얼음판 같다. 파도치는 바다와 같다 이런 말을 하죠. 몸은 배로 비유를 하시고요, 또 몸속에 들어 있는 생명체들은 중생으로 비유하시고, 또 우리의 주인공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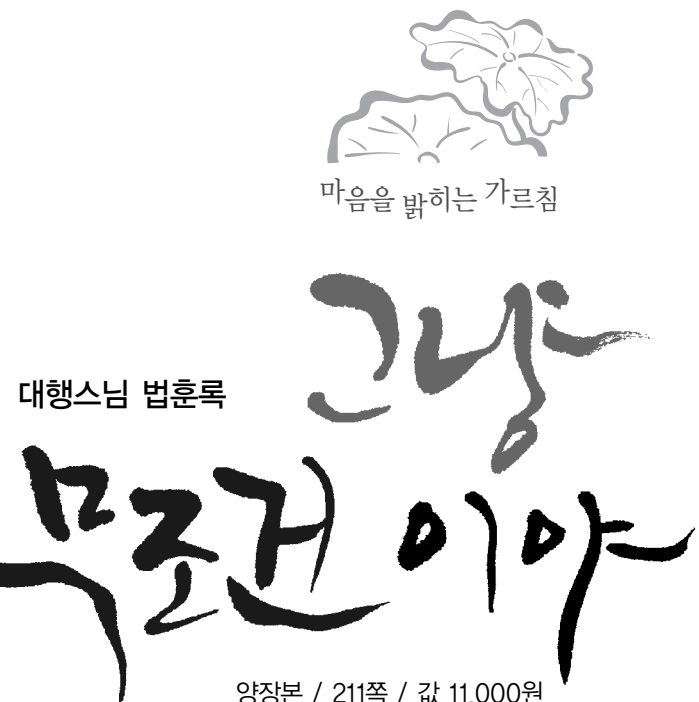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을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나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상!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상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 본문 중에서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모든 것을 일임한다면 걱정이 없어요

29면에서 계속

은 선장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지금 인생길을 노를 젓고 있는데 파도가 치고 그한다고 해서 뭐 이 이름 저 이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고 저 주해신 하고 바깥으로 찾아 뵈자야 그거는 오히려 배가 뒤집힐 징조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냐? '마음으로 모든 걸 집중을 해서 안으로 거기다 놓으면 이 선장하고 콧비가 돼서 그냥 배는 그대로 유유히 가는 데까지 다 갈 수 있다.' 고 말씀하셨죠.

사대 성인들도 다 말씀하시기를 "인생이라면 못났든 잘났든 너 먼저 알아야 하느니라. 너 몸통이 자동차라면 바로 그 자동차를 이끌어 가는 운전수가 참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모습이 자기가 아니라 모습은 참자기가 이끌어 가는, 즉 말하자면 불가에서 시자라고 그러지만 종이냐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 종이라 기보다 자기의 육신은 자기가 형성시켰고 자기가 바로 진화를 시켰으니까 자기 몸이요, 자기가 자기 몸을 이 세상에 형성시키기 위해서 정자 난자를 빌려서 이 세상에 출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도 그냥 이끌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니 애들이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두가 지금 자기가 살면서도 이 정신과 육신이 같이 콧비가 돼서 100%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몰라서 50%만 자기라고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걸려서 스트레스가 된다는 얘기에요. 뭐든지 걸려니까. 보이지 않는 정신계를 아예 생각지도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지 마라, 잠을 자지 마라, 먹지 마라, 입지 마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대로 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운전수가 차를 이끌고 다녀요. 기름이 없어도 운전수가 넣어 줄 것이고 짜그러져도 바로 고칠 거고 고장이 나도 고칠 거고...

그렇듯이 나의 주인공에게 모든 것을, 나는 심부름꾼이니까 그냥 거기다 맡기고 부지런히 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요만한 거든지 큰 거든지 작은 거든지 일거수일투족 그냥 갖은 각색으로 타쳐와요. 그 모든 것을 거기다 일임하고 진짜로 믿는다면 일임하고도 걱정이 안되죠. 걱정이 안되고 그냥 믿고 넘어가는 그 마음 태세, 그것이 아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요새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걸로 육하고 때리고 그래서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마음으로 휘어잡을 수 있어야만이 나갔다가도 들어올 겁니다. 아미.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데는 여러분도 그 자신들하고 자식이나 부모나 하는 그 이미지는 다 가설이 된 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

내도 자식도 그렇게 되게끔 관하면, 즉 말하자면 거기다가 일임하고 관하고서 자기는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해 줘라. 자식이 나 남편이나 아내나 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대로 돼요. 이 모두가 그냥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냥 신경질이 나면 아무 데나 그냥 막 해 버리고 마는 그런 상태가 많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속에서 분이 차밀어도 '너만이 이 분이 차밀지 않게 할 수 있어. 너만이 화목하게 살게 할 수 있어. 너만이 이끌어 갈 수 있어. 네가 형성시켰으니까 너 알아서 해.' 하고 그냥 떠밀어서 일임하고 가 보세요. 그러면 마음은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거짓말인가 한번 해 보세요.

주인공이 나쁜 걸 하려고 하는데...

문) 이게 좀 우문이겠지만 주인공이 자꾸 나쁜 걸 하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 하지 않고 게으름

겨 놓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돼서 체험을 해라. 하나하나 체험을 하다 보면 자기는 완성된 참다운 인간이 돼서 훌륭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자기 내면의 친구를 정말 그대로 서로 자문답하면서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전생에 지은 죄업 때문일까요?

문) 좀 안다 하는 사람이 저를 보고 너는 전생에 지은 죄업이 많아서 지금 일이 안 풀리는 거라고 그러면서 부처님 전에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무시할 수도 없고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정말 제가 지은 죄업 때문일까요?

답) 우리가 타력으로 나간다면 죄가 있으니까 죄를 사해야 하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야 하고 108배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누가 죄를 벗

니다만, 참나에 돌아가는 이 자체를 우리는 용도에 따라 잡아서 쓰는데 항상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절엔 다녀도 죄를 덮어쓰고, 죄를 덮어주고, 죄를 덮어 씌워 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한 것을 짊어지고 지금 현생에 나왔기 때문에 과거도 없애 버리고 미래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없애 버리고 지금 현재에도 참나이기 때문에 붙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여여하게 그대로 지금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먹고서 내가 이걸 해야겠다 하면 하는 거고 내가 이것이 죄가 있어서 못한다 하는 생각은 그건 하지 않으셔야 되고, 마음은 체가 없는 것이고 죄도 체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과거 아닙니까? 일초 전도 과거죠. 일초 전에 무슨 죄를 지으셨습니까? 지었다고 생각하면 지은 거고 안 지었다고 생각하면 안 지은 건데, 안 지었다고 생각도 말고 지었다고 생

일임해서 놓고 믿고 감사하고 마음 편안하게 뒤라 이겁니다. 모든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주인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한다면 어떠한 말을 듣더라도 걸리지 않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다 이겁니다. 아셨죠?

지구의 에너지가 고갈된다면...

문) 우리 인간들의 이기심으로 지금 지구가 위협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해 주는 모든 에너지들마저 다 고갈되어 버리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 여러분은 말 없이 말하는 거 모르시죠? 말 없이 저런 나무들도 말하는 거 모르시죠? 날아다니는 새들도 말 없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땅도 살아 있고 땅도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 땅도 땅이 쳐져 있습니다. 땅속으로 이렇게 땅이 쳐져 있다는 것은 꼭 아셔야 합니다. 범망입니다. 그게, 이 인간도 전부 이 세포가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범망입니다.

바깥에서 그거 아무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안에서 아무거나 들어와서 받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라도 잘되는 걸 막아 돌아가는 거죠. 이 세포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거미줄 얽히듯 했으니까요. 이 지구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듯이 땅에도 그렇게 땅이 되어 있습니다. 몇 층 아래는 땅으로 돼 있고 또 젖같이 끈적끈적하는 대로 돼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그 근본입니다. 근본에서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그게.

우리가 병원에서 호흡을 못하면은 산소를 쓰고 있고? 산소를 쓰고 있는 것도 그것도 자기의 산소가 산소로만 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질소가 75%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산소보다도 더 윗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 안에서 정말 에너지가 없어서 우리가 정말 고통 받을 때는 에너지를 허공에서 끌어서 쓸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우리가 나쁘게 쓰려면 이 수소를 얼마나 나쁘게 쓰겠습니까? 지금 수소 폭탄 말입니다. 그러나 수소폭탄도 그것도 그것을 잘 돌려서 연구하기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자세히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정말 깨쳐서 이 마음 도리를 다 알 수만 있다면 그냥 끌어내려서 연구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이익하게 정말, 우리가 몰이 없다 이런 그냥 바닷물도 갖다 먹게 만들어서 모두 여러분이 다 쓸 수 있고 또 에너지가 없다 하면 달리 그런 거 없이도 우리가 그 에너지를 같이 똑같은 걸로 잡아 쓸 수가 있고, 우리에게 그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도리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옳다 그르다 하는 것도 다 놔버린 채
자기 주인공에 그대로 맡겨놓고 가신다면
아무리 악한 마음이라도 그대로 보살의 마음으로서 정림이 되면서
여러분을 좋게, 선행으로 끌고 갑니다.
이건 자동적입니다.

만 부리는데 그런 주인공에게 맡겨 놔도 될까?

답) 이거 보세요. 그렇다면 주인공이 말이요, 그 사람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더 타격을 주는 거죠. 타격을 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다시 그 후에 끌고 가요. 참 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되는 것만 법이 아니고 안되게 하는 것도 법이다 이겁니다. 자기 주인공은,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고 나가야 할 텐데 다스리지 않고, 즉 말하자면 악으로 나간다고 잘못 된 도둑질로 나간다고 이렇다면 그 주인공은 도둑질하게 내버려 둬요. 열 번이고 다 내버려둬서 인생관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한 중간쯤 가다가 만들어 가지고선 다시 회전을 해서 나오요. 조금이라도 기미가 보이면 다시 회전을 해서 나오죠.

어떻게 사람이 나쁘게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때에 따라서 나쁜 생각도 해 보는 건 앞에 너무 고달픈 일이 생기고 그 살려고 바둥거리려도 안 될 때 막생각을 해 보는 수도 있죠. 그러나 막생각이 들걸랑은 '주인공, 내가 이렇게 막생각을 하게 해서 되겠어?' 하고 거기다 맡겨 놓으면요, 그렇게 이끌고 가진 않아요. 나는 '꼭 그렇게 말

겨 주고 씌워 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것을 누가 대신해 주거나 씌워 주거나 대신 벗겨 주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쪽에 잘된 나무가 서 있는데 이쪽 나무가 저쪽 나무를 보고 부러워서 "아휴, 이 나무는 참 잘됐구나. 나도 너같이 그렇게 잘 자라게 좀 해 줄 수 없나?" 아무리 그래도 그런 소용이 없어요. 그 나무가 이쪽 나무를 잘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 뿌리가 굵고 성성해야 싹이 굵고 잘되는 법이니까요.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아무리 한 팔 한 다리가 없든, 한 쪽이 없든 자기가 중대한 겁니다. 자기가, 자기 안에 자부처, 즉 말하자면 '자신(自神)' 입니다. 그래서, 신은 부(父)가 되고 자(子)는 말씀이 된단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생각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건 자가 되고 생각하기 이전의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자기 부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 자신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부처는 각자 마음에 있는 거지 어떠한 형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도리를 우리가 이게 말로는 할 수가 없는 이런 이치가 거기에 붙어 돌아갑

각지도 마시라 이겁니다. 그러되 내가 하고 가는 길 그대로 여여하게, 일체 만법을 그대로 자유스럽게 여여하게 씌움을 쓰고 가는 것이 그대로 불교며 바로 그대로 여러분의 선행입니다. 그럼 악하게 하는 것도 선행이냐? 이렇게 하신다면 그런 어폐가 있는 말이겠죠. 그런데 악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선하게 나오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자동적이죠.

지금 여러분이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을 놔 버린 채 그대로 맡겨 놓고 가신다면 아무리 악한 마음이라도 그대로 보살의 마음으로서 정림이 되면서 바뀐다면, 이렇게 진화가 되면서 여러분을 좋게 이끌어 선행으로 끌고 갑니다. 이건 자동적이죠.

그러니까 불교가 목탁이나 치고 밥이나 내려 먹고 또 죄나 씌워 주고 죄나 씌워 받고 이러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부처님게선 그것을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바깥에서 찾던 거를 모두 안에서 구원을 받으세요. 안에서. 그러니까 주인공을 첫째로 믿고 모든 것을 내가 하나하나, 손가락 하나 움쭉거리는 것마저도 그 주인공에서 형성된 거니까 모든 건 주인공에다

since1973

그동안 베풀어 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달력 가격 대폭 인하**해 드립니다.

2012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12월
258mm x 265mm

200부 이상 @ 1,000 원

3,000부 이상 @ 800 원



동진기획 · 붓다쇼핑
☎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 (051) 515-2988, 555-1087, 508-9377~8 FAX. (051) 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달력카드 등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 농협: 121068-56-042256 ◆ 우체국: 612416-02-031008 [예금주: 강태규]